

북한이탈아동의 부모관련요인과 문화적 지향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박주현*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입방안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남한에 도착한지 6개월이 지난 새터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접근성 문제로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 139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WIN 10.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중다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북한이탈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는 아버지의 학력, 이주 후의 동거가족 수,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북한이탈아동, 자아존중감, 부모요인

논문제출일 : 2010. 10. 30.

최종심사일 : 2010. 11. 28.

* 이 글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인 “북한이탈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백석대학교)을 수정·재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 백석예술대학 겸임교수

Corresponding Author : Park, Ju Hyu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arts University, 981-7, Bangbaedong 3-gil, Seocho-gu, Seoul, Korea137-848 . E-mail: copierpark@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들어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10명 내외에 불과했으나,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2년부터 매년 1,000명을 초과하여 2005년에는 1,384명, 2006년에는 2,019명으로 전년 대비 45.9%의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 5월 1만 명을 넘어 2009년 6월 현재 1만 6,5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였다(한국일보, 2009. 7. 9).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양적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30~50대, 남자, 군인, 유학생, 단독, 휴전선이나 동유럽 등을 통한 입국이 많았으나, 1990년대 말부터는 전 연령층에 고루 걸쳐 있고 직종과 신분이 다양하며, 주로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통일부, 2004). 또 입국인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95년 이전에는 7.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증추세를 보여 2006년부터는 70~80%가 여성이다(통일부, 2007; 한국일보, 2009. 7. 9). 특히 가족단위 입국자가 전체 입국자의 약 50% 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남한에 입국한 가족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또한 가족단위 입국자가 증가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가족단위 입국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아동·청소년의 입국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입국자 수는 전체 입국자의 20% 정도로 추산할 때 2009년 6월 말 현재 3,000명 정도가 입국하였으며, 이 중에서 7~15세의 아동(초등학생)은 600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정체감과 남한사회에서 요구되는 사고방식 사이에서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자신을 발견해야 하며, 이후 성인기를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학업이나 직업훈련의 기회와 이에 따른 적절한 자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아동들이 안정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인적 능력이나 사회환경적 자원은 매우 열악하거나 결핍되어 있다. 이들은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 더욱 확대된 사회적 지지망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원이 되어 줄 가족마저 해체되거나 상실한 경우가 많다.

또한, 북한이탈아동은 가장 중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들의 학력결손 비율은 약 90%에 이르고 있다.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2001년부터 아동과 청

소년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처럼 심각한 수준의 학력결손은 남한에서 정규학교의 진학을 어렵게 하여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단지 38%만이 제도권 학교에 다니고 있다. 아울러 학교에 진학했던 청소년들조차 학력이 부진하거나 교사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더는 학교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약 13.7%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남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중도탈락률의 10배에 이르는 비율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러한 현실은 북한이탈아동의 문제를 연구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부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수십 편에 이르고 있지만, 주로 성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남한의 대학생 연령대까지를 포함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나마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대다수도 문헌에 기초하였거나 소수 북한이탈청소년과의 면담에 의한 탐색적 연구로, 청소년기의 전단계인 아동기 북한이탈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을 이탈하여 제삼국을 거치면서 겪은 북한이탈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은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동에게는 이들에게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체계에 의한 지원정책이 요구되기에 현재의 국가나 민간단체의 서비스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로 향후 북한이탈아동을 위한 정착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 1) 북한이탈아동의 이주 전, 이주과정, 이주 후의 삶은 어떠한가?
- 2) 북한이탈아동의 이주 전·이주과정·이주 후의 삶, 문화적응 지향성, 부모의 지지, 교사의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북한이탈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이주과정의 삶과 부모 관련 요인

이주 전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이 높으면 양문화주의가 높고, 스트레스 정도는 낮았다 (Moyerman et al., 1992; Meredith et al., 2000).

이주 과정의 삶의 경우 제삼국에서의 경험이 부정적이었던 북한이탈아동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남한에 더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삼국에서의 경험과 가족 요인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과 함께 북한을 이탈하여 제삼국에 머물 때에는 가족이 있는 경우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남한에 입국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가족의 존재가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후의 삶의 경우 부모 이외 보호자 아래에 있는 북한이탈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들보다 남한사회 적응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다른 어떤 형태의 보호자보다 청소년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지지제공자로서 양 부모를 선택하여 응답한 경우가 친부모나 직장 동료 등 다른 이들을 사회적 지지제공자로 선택하여 응답한 경우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소래, 1997; 김형태, 2004; 박윤숙, 2006).

2) 문화적응 지향성 요인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연구로 독고순(1999)은 가치 정향과 문화적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가치 정향 분석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주민보다 수직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불평등이나 서열에 따른 특권을 받아들이면서 더욱 경쟁적인 성향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마디로 '성취 지향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적응에 대한 자신감과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성취 지향적 태도는 초기 적응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비록 행동 적합성의 측면에서는 남한주민보다 월등히 낮은 정도의 적응 수준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인지적·정서적 측면에서는 남한주민과 비슷하거나 웃도는 수준을 보여 주고 있어, 적응에 대

한 의지나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를 수용하려는 정도도 높고, 특히 남한사회에 전적으로 동화되길 희망하는 동화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적응에 대한 의욕이 높음을 시사한다.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에 대한 채정민(2003)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의 문화에 대해 단지 지각된 문화 이질감이 크다고 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조사에서는 남한에 도착한 지 6개월 이상 된 7세에서 15세까지의 북한이탈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을 남한의 아동(초등학생) 기준인 12세까지로 하지 않고 15세까지로 한 것은, 북한이탈아동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자신보다 2~3세 낮은 연령으로 학업수행이 이루어져 대다수 15세의 북한이탈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이다¹⁾. 남한사회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정착한 지 6개월 미만이면 아직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남아 있으며, 남한사회에서의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정확한 인지를 나타내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방법은 북한이탈아동의 접근성 문제로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자와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이 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원은 총 9명으로 북한이탈주민(대학생과 일반인) 8명과 적십자혈액원 자원봉사자 1명의 도움을 받았으며, 작성된 설문지 143부 중 부실 기재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최종 139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1)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만 9세 이상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병호(2006)는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 살이 연구”에서 15세 이하를 북한이탈아동으로, 16세 이상을 북한이탈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2. 측정도구

1) 이주과정의 경험

이주과정의 경험척도는 엄태완(2004)이 10문항으로 개발한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북한이탈아동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하위요소로 신체·사회적 곤란에 관한 내용으로 4문항, 가족과의 이별·사별경험에 관한 내용으로 4문항, 신변의 위협에 관한 내용으로 5문항이다. 측정수준은 ‘예’는 1점, ‘아니오’는 0점이며, 점수범위는 신체·사회적 곤란은 0~4점, 가족과의 이별·사별경험은 0~4점, 신변의 위협 경험은 0~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북한이탈과정의 각 하위요소에서 곤란을 많이 겪었던 것을 의미한다.

2) 부모 지지, 교사 지지

부모지지 척도와 교사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김연수(1995)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던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북한이탈아동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각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측정수준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부모지지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고, 교사지지의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3) 북한문화·남한문화 지향성

채정민·한성열·허태균·김동직(2002)이 Berry의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 유형 개념에 따라 한국에 유입하는 북한이탈주민용으로 4점 척도의 총 16개 문항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새터민 초등학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문항의 표현을 간소화하여 수정하였다. 북한문화 지향성과 남한문화 지향성으로 각 8개 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지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과 .80으로 나타났다.

4) 자아존중감

로젠버그(Rosenberg, 1979)의 10문항 자아존중감 척도를 북한이탈아동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역 채점 문항: 2번, 5번, 6번, 8번, 9번).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이주 전, 이주과정, 이주 후의 삶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이주 전·이주과정·이주 후의 삶, 문화적응 지향성,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북한이탈아동의 이주 전 · 이주과정 · 이주 후의 삶

1) 이주 전의 삶

이주 전의 삶은 <표 1>와 같다. 아버지의 학력으로는 고등중학교졸업 이하가 75.5%로 많았고, 대학교졸업 이상은 20.9%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중학교졸업 이하가 79.1%, 대학교졸업 이상이 15.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학력보다 어머니의 학력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노동자·농장원이 66.2%로 가장 많았고, 사무원(근로 인테리) 11.5%, 군인 5.8%, 당 간부(당정 요원) 3.6%였다. 어머니의 직업은 노동자·농장원 43.8%, 사무원(근로 인테리) 5.8%, 당 간부(당정 요원) 2.9%의 순이었으며, 기타와 무직이 38.9%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가정형편을 상·중·하로 구분²⁾하였을 때 하에 속하는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고, 중에 속하는 경우 41%, 상에 속하는 경우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학력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가 51.1%로 가장 많았고, ‘인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32.4%, ‘고등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주 전의 삶의 하위요소인 경제수준 변인의 3집단 구분: ‘매우 여유 있게 살았다’와 ‘여유 있게 살았다’는 ‘상’으로, ‘보통으로 살았다’는 ‘중’으로, ‘매우 어렵게 살았다’와 ‘어렵게 살았다’는 ‘하’로 표시하였다.

<표 1> 이주 전의 삶

(전체: 139명, 100.0%)

변 인	구 분	부		모	
		N(사례수)	비율(%)	N(사례수)	비율(%)
학력	고등중학교졸업 이하	105	75.5	110	79.1
	대학교졸업 이상	29	20.9	21	15.1
	무응답	5	3.6	8	5.8
직업	군인	8	5.8	0	0.0
	당 간부(당정요원)	5	3.6	4	2.9
	노동자·농장원	92	66.2	61	43.8
	사무원(근로 인테리)	16	11.5	8	5.8
	기타·무직	13	9.4	54	38.9
	무응답	5	3.6	12	8.6
	구분	N(사례수)		비율(%)	
가족형태	핵가족	53		38.1	
	확대가족	80		57.6	
	무응답	6		4.3	
경제수준	상	23		16.5	
	중	57		41.0	
	하	59		42.5	
이주전 아동의 학력	미취학	71		51.1	
	인민학교 재학	45		32.4	
	고등중학교 재학	20		14.4	
	무응답	3		2.1	

2) 이주과정에서의 삶

이주과정의 삶은 <표 2>와 같다. 이주과정에서 신체·사회적 곤란의 경험 정도가 ‘보통이다’가 47.5%로 가장 많았고, ‘많이 겪었다’ 31.7%, ‘적게 겪었다’ 19.4%로 조사되어 이주과정에서 보통 이상의 신체·사회적 곤란을 경험한 경우가 79.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가족과의 이별·사별의 경험 정도는 ‘적게 겪었다’가 45.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 28.8%, ‘많이 겪었다’ 24.5%로 조사되어 보통 이상의 가족과의 이별·사별을 경험하였거나 목격할 경우가 5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의 위험 경험정도는 보통 이상의 신변의 위험을 경험한 경우가 5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과정의 기간은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3) 이주과정에서의 삶의 하위요소인 신체·사회적 곤란, 가족과의 이별·사별경험, 신변의 위험 변인의 3집단 구분: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앙값보다 낮은 점수는 ‘낮음’, 중앙값은 ‘보통’, 중앙값보다 높은 점수는 ‘높음’으로 표시하였다.

28.8%로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 24.5%, 3년 이상 23.7%, 1년 이상~3년 미만 2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과정에서의 가족형태로는 확대가족이 32.4%, 핵가족이 64.0%로 핵가족 형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이주과정에서의 삶 (전체: 139명, 100.0%)

변 인	구 분	N	비율(%)
신체·사회적 곤란	낮음	27	19.4
	보통	66	47.5
	높음	44	31.7
	무응답	2	1.4
가족과의 이별·사별경험	낮음	63	45.3
	보통	40	28.8
	높음	34	24.5
	무응답	2	1.4
신변의 위험	낮음	62	44.6
	보통	33	23.7
	높음	42	30.3
	무응답	2	1.4
이주기간	6개월 미만	34	24.5
	6개월 이상~1년 미만	40	28.8
	1년 이상~3년 미만	32	23.0
	3년 이상	33	23.7
이주 전 가족형태	핵가족	89	64.0
	확대가족	45	32.4
	무응답	5	3.6

3) 이주 후의 삶

이주 후의 삶은 <표 3>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50.4%, 여자가 49.6%로 나타났으며, 현재 나이는 12~15세가 61.9%, 7세~11세가 38.1%로 조사되었다. 학교과정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가 45.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4학년~6학년 34.6%, 중학생 20.1% 순으로 나타났다. 과외활동은 ‘공부방에 다닌다’ 29.5%, ‘학원에 다닌다’ 23.7%, ‘과외를 하지 않는다’ 10.1%로 남한사회의 일반학생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외활동과 비교하면 북한이탈아동의 과외활동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이주 후의 삶

(전체: 139명, 100.0%)

변 인		구 분	N	비율(%)
성별		남자	70	50.4
		여자	69	49.6
연령		7세~11세	53	38.1
		12세~15세	86	61.9
학교과정		초등3학년 이하	63	45.3
		초등4학년~6학년	48	34.6
		중학생	28	20.1
남한생활 기간		1년 미만	50	36.0
		1년~2년 미만	27	19.4
		2년~3년 미만	22	15.8
		3년 이상	40	28.8
친한 친구 수		0~1명	25	18.0
		2명	37	26.6
		3~4명	40	28.8
		5명 이상	37	26.6
과외활동	학원	유	33	23.7
		무	106	76.3
	공부방	유	41	29.5
		무	98	70.5
	과외	유	14	10.1
		무	125	89.9
	전체 ⁴⁾	유	78	56.1
		무	61	43.9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기능 및 단순노무직이 28.8%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 22.3%, 서비스·판매·영업직 10.1%, 사무·관리 및 전문직 4.3%, 자영업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 41.0%, 생산·기능 및 단순노무직 15.8%로 나타났다. 후원 정도에 대한 내용으로, 도움을 받는 물질적 후견인은 20.1%, 정신적 후견인은 30.9%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물질적 도움기관이 있는 경우가 32.4%, 정신적 도움기관이 있는 경우가 29.5%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북한이탈아동이 남한에서의 삶에서 물질적·정신적 도움을 받는 정도가 미미한 것임을 의미한다. 상담지도에 대한 만족 정도, 즉 각 기관에서의 사회복지사나 상담교사 등의 지도에 대한 만족 정도는 ‘보통이다’가 50.4%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 43.9%로 나타나 대부분 보통 이상 만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과외활동(학원, 공부방, 과외 등) 변인에서의 ‘전체’: 과외활동을 한 종류라도 참여한 경우에는 ‘유’, 한 종류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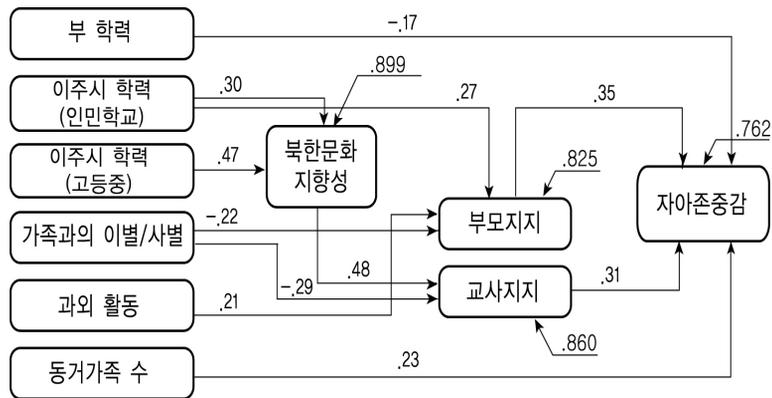
<표 3-1> 이주 후의 개인적 배경

(전체: 139명, 100.0%)

변 인	구 분	부		모	
		N	비율(%)	N	비율(%)
연령	40세 미만	26	18.7	18	12.9
	40세 이상~45세 미만	35	25.2	47	33.8
	45세 이상	36	25.9	51	36.7
	무응답	42	30.2	23	16.5
직업	사무·관리 및 전문직	6	4.3	2	1.4
	서비스·판매·영업직	14	10.1	18	12.9
	생산·기능 및 단순노무직	40	28.8	22	15.8
	자영업	2	1.4	6	4.3
	무직	31	22.3	57	41.0
	무응답	46	33.1	34	24.5
동거가족 수	1~2명	34		24.5	
	3~4명	80		57.6	
	5명 이상	25		18.0	

2. 북한이탈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북한이탈아동의 문화적 지향성과 부모관련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주 전의 삶의 하위변인 중 북한에서의 아버지 학력이 고등 중학교졸업 이하의 경우보다 대학교졸업 이상($\beta = -.17^*$)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 전 학력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경우에 비해 인민학교($\beta = .30^*$)나 고등중 학교($\beta = .47^{***}$)에 다닌 경우 북한문화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전 학력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경우에 비해 인민학교($\beta = .27^{**}$)를 다닌 경우 부모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과모형

자아존중감에 대한 각 변인 간의 인과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북한에서의 아버지 학력, 이주 후의 삶의 하위변인인 동거가족 수,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서의 아버지 학력이 대학교졸업 이상인 경우, 현재 동거가족 수가 많을수록,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각각의 변인 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 전의 삶의 하위변인인 이주 전 학력은 문화적응 지향성의 하위변인인 북한문화 지향성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교사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서 인민학교나 고등중학교에 다닌 경우 북한문화 지향성이 높았고, 이럴 경우 교사지지를 많이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서의 학력이 인민학교를 다닌 경우 부모지지를 많이 받고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과정에서의 삶의 하위변인인 가족과의 이별·사별경험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과정에서 가족과의 이별·사별에 대한 곤란을 적게 겪을수록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를 많이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주 후의 삶의 하위변인인 과외활동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부모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외활동을 많이 할수록 부모지

지를 많이 받고 이럴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화적응 지향성의 하위변인인 북한문화 지향성은 이주 전 학력이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부모지지는 이주 전의 삶의 하위변인인 이주 전 학력과 이주과정의 삶의 하위변인인 가족과의 이별·사별경험 및 이주 후의 삶의 하위변인인 과외활동이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인 교사지지는 북한문화 지향성과 가족과의 이별·사별경험이 경유하는 매개변인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에 중요한 변인인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개입방안의 근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조사대상은 남한에 도착한 지 6개월이 지난 7세~15세까지의 북한이탈아동을 대상으로 작성된 설문지 139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 전의 삶의 하위변인 중 북한에서의 아버지 학력이 고등중학교졸업 이하의 경우보다 대학교졸업 이상($\beta=-.17^*$)인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 전 학력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경우에 비해 인민학교($\beta=.30^{**}$)나 고등중학교($\beta=.47^{***}$)에 다닌 경우 북한문화 지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전 학력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경우에 비해 인민학교($\beta=.27^{**}$)를 다닌 경우 부모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과정에서의 삶의 하위변인에서는 가족과의 이별·사별 경험($\beta=-.22^{**}$, $\beta=-.29^{***}$)의 곤란이 적을수록 부모지지와 교사지지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후의 삶의 하위변인에서 과외활동 정도($\beta=.21^{**}$)가 높을수록 부모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거가족 수($\beta=.23^{**}$)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지향성의 하위변인에서는 북한문화 지향성($\beta=.48^{***}$)이 높을수록 교사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문화 지향성($\beta=.43^{***}$)이 높을수록 부모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변

인에서는 부모지지($\beta=.35^{***}$)를 많이 받을수록, 교사지지($\beta=.31^{***}$)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아동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에서 신체, 사회적 곤란을 높게 경험한 사례는 31.7%, 신변의 위협을 높게 경험한 사례도 30.3%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아동이 이주과정에서 겪은 심리적인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부모지지 많이 받을수록 북한이탈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주과정에서 부모와 이별이나 사별을 경험한 북한이탈아동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24.5%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한 부모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후원자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아동에 대한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정책과 교육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아동의 정착 및 적응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임시적·구호적 지원을 탈피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심리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적 전략이 수립되어 그들에게 재사회화 교육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의 통일준비-북한이탈청소년 적응실태와 학교설립 방안”. 정책과제연구 심포지엄자료』.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형태(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윤숙(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태완(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소래(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외 3인(2002). “북한이탈주민용 문화적응 전략 척도 개발”. 『동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85-94.
- 통일부(2004). 『통일부 정착지원과 내부자료』.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 _____ (2007). 『통일부 정착지원팀 내부자료』.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팀, 2007.
- 한국일보(2009. 7. 9). 탈북자 정착교육기관 ‘하나원’ 10주년.
- Meredith, L. S., Wenger, N., Liu, H. & Harada, N.(2000). Development of a brief scale to measure acculturation among Japanese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1), 103-113
- Moyerman, D. R. & Forman, B. Y.(1992)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A meta-analytic study.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4(2), 1992, 163-200.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Abstract

Factors Affecting the Self the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New Inhabitation

Park, Joo-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out concretely the several factors which influence North Korean defection children's self concept, and so prepare the intervention measures which enable them to adapt themselves well to South Korean societ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he North Korean defection children of age 7-15 who had been lived in South Korea for more than 6 months. This study analyzed 139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hich investigators drew up by visiting all the regions of our country. As data processing, this study executed the statistical processing by using SPSS/WIN 12.0 program. As frequenc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variables, which influenced directly the self concept, were the education level of father,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in South Korea, and Parent support and teacher support.

Key Words : Primary School Students in the New Inhabitation, Self Concept, Parent Effects

* Adjunc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Baekseok arts University